

노 동 동 향

## 경제일반 동향

김 용 현\*

### ◆ 완만한 경기회복

- 2월 경기는 수출증대에 기인하여 완만한 회복(그림 1 참조)
  - 선행종합지수는 자본재수입액, 입·이직자 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4%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로도 3.2%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수출액,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1.3% 증가
  -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년동기대비 0.1포인트 낮지만, 2003년 8월 이후로 소폭 개선되고 있으며, 전월보다는 0.8포인트 증가
  - 2004년 2월 후행종합지수는 전월과 동일

---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2002	2003					200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1/4분기		
						12월p	1월p	2월p
선행종합지수 <sup>1)</sup>	108.6	108.1	106.7	108.7	110.5	111.0	111.2	111.7
동행종합지수 <sup>2)</sup>	113.6	115.3	115.3	116.4	119.7	120.8	121.7	123.3
후행종합지수 <sup>3)</sup>	115.5	117.4	118.9	120.3	121.6	122.1	122.8	122.8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8	100.5	98.8	98.0	99.2	99.5	99.6	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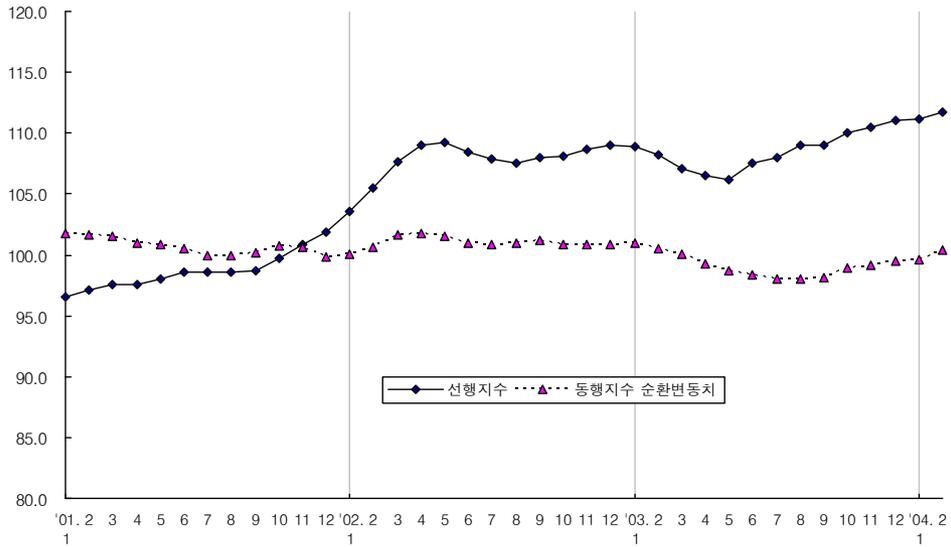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분기별 자료는 월별 자료의 평균치임.

- 1) 선행종합지수란 사전에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화량과 같이 장래의 경제활동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또는 수입승인액, 기계수주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 동행종합지수란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생산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국민경제의 변동 그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
- 3) 후행종합지수란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기계류 수입액, 생산자 재고지수 등과 같은 지표들로 구성.

자료 : 통계청, 『200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04. 3.

[그림 1]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자료 : 통계청, KOSIS.

◆ 소비 저조

- 2월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1~2월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감소하는 등 소비재 판매가 저조
  - 도소매 판매는 107.8(2000=100.0)로 자동차 및 차량연료(-5.3%)는 부진하였으나 도매업(4.9%)과 소매업(1.4%)의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 전월에 비해서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에서 감소하여 0.4% 감소
- 2월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98.5(2000=100.0)로 내구소비재(-2.5%)는 감소하고 비내구소비재(2.7%)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8% 증가
  - 내구소비재에서 휴대용전화기, TV 등은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냉장고 등에서 감소하여 2.5% 감소
  - 비내구소비재는 서적, 노트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약품, 담배 등에서 증가하여 2.7% 증가

<표 2> 소비 동향

(단위 : 2000=100.0,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4분기		
							1월p	2월p	
도소매 판매지수	115.4 ( 8.3)	113.9 ( -1.3)	113.4 ( 1.5)	113.4 ( -1.7)	110.8 ( -2.5)	118.1 ( -2.2)	121.0 ( -1.2)	116.1 ( -2.3)	107.8 ( 2.4)
내수용소비재 출하	111.1 ( 8.1)	104.5 ( -5.9)	105.1 (-2.8)	102.6 ( -8.0)	101.6 ( -7.0)	108.5 ( -6.1)	111.9 ( -2.7)	102.0 ( -8.5)	98.5 ( 0.8)
내 구 재	120.6 (17.1)	106.7 (-11.5)	109.8 (-4.4)	109.5 (-12.5)	100.7 (-14.9)	106.7 (-13.8)	106.7 (-10.7)	97.0 (-12.8)	103.9 (-2.5)
비 내 구 재	106.9 ( 3.9)	103.4 ( -3.1)	102.8 (-2.1)	99.4 ( -5.4)	102.0 ( -2.8)	109.4 ( -2.1)	114.3 ( 1.2)	104.3 ( -6.4)	96.1 ( 2.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임.

도소매업 판매지수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판매액을 물가디플레이트(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한 불변지수임.

자료 : 통계청, 『200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04. 3.

◆ 투자 증가

○ 설비투자 증가

- 설비투자지수는 116.3(1995=100.0)으로 자동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1% 증가
- 국내 기계수주는 민간(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및 부동산서비스업) 및 공공부문(주택용 엘리베이터, 철도 배전용 차단기)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

○ 건설투자 둔화

- 지난 2년 동안 호조를 보인 건설경기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둔화되고 있음.
-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주택, 도로교량 및 상하수도 등)의 발주는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주택, 사무실 및 학교 병원)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3.9% 감소
- 국내 건설기성은 공공발주 공사실적은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 국내 건설기성을 공종별로 보면, 건축공사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증가하여 15.6%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는 일반토목 등이 감소하여 11.3% 감소

<표 3> 투자 동향

(단위 : 1995=100.0, 십억원,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4/4분기			
						12월	1월p	2월p	
설비투자지수	123.0 ( 1.6)	117.3 (-4.6)	120.3 ( -3.4)	121.1 (-3.7)	108.6 (-7.0)	119.3 (-4.7)	123.2 (-1.6)	100.3 ( -3.2)	116.3 ( 2.1)
국내기계수주	24,511 (21.0)	22,436 (-8.5)	5,574 (-16.8)	5,758 (-3.4)	5,458 (-7.5)	5,643 (-5.0)	1,864 (-9.1)	2,048 ( 12.9)	2,066 ( 12.7)
국내건설수주 <sup>1)</sup>	67,834 (33.0)	83,072 (22.5)	16,520 ( 3.3)	24,320 (50.5)	18,814 (47.6)	23,418 ( 2.1)	10,958 ( 6.7)	4,492 (-14.3)	4,529 (-23.9)
국내건설기성 <sup>2)</sup>	56,216 (11.2)	66,775 (18.8)	14,035 (20.7)	16,497 (18.4)	16,082 (17.9)	20,161 (18.6)	8,053 (24.4)	4,812 ( 6.1)	4,725 ( 5.4)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임. 1), 2)는 민간유치사업과 국내 외국기관 발주분 포함.

설비투자지수는 1995=100.0로 산출된 지수이며, 나머지는 경상금액임.

1) 국내 건설수주란 일반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국내건설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국내 건설기성이란 국내 건설공사기성액(도급공사액과 직영공사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건설 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자료 : 통계청, 『200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04. 3.

## ◆ 수출입 증가세 확대

- 2004년 1/4분기 수출은 597.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9% 증가하고, 3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5% 증가한 214.5억달러, 수입은 20.1% 증가한 190.7억달러를 기록(표 4 참조)
  - 수출입 모두 월간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1994년 12월(107.0억달러) 1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한 이래 9년 3개월 만에 200억달러대의 수출실적을 기록
- 최근의 수출이 기록적인 호조를 보인 것은 대내적으로 지난 해 이후 강화해온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력품목의 세계경쟁력 확보 및 기술·품질 향상노력,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육성, 수출보험·금융·세제 지원확대 때문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수요의 증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최근 들어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화강세, 해상 운임의 급증, 중국 등과의 경쟁격화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대두
  - 품목별로는 반도체(67.7%), 자동차(54.0%), 무선통신기기(40.6%) 등 주요 품목이 모두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호조세를 주도
  - 지역별로는 그간 증가세가 미미하던 대미·대일 수출이 전월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대중 수출의 신장세 및 대 EU·대 아세안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
- 수입동향을 보면 원자재 수입비중은 크게 하락한 반면,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상승
  -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자재(7.7%)는 철강금속제품의 수입급증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 감소로 한 자리수 증가로 둔화되었으며, 자본재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5.4% 증가하고, 소비재는 13.8% 증가
  - 국가별 전년동기대비 수입을 살펴보면 대일 수입 29.2%, 대미수입 9.7%, 대중수입 29.1% 신장세 지속
- 2004년 1/4분기 평균환율은 1170.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하락하고, 전월대비 0.9% 하락
  - 3월의 평균환율은 전월대비 1.4% 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0.1% 하락한 1,166.2원 기록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1월	2월	3월	
수 출 액	193,817 (19.6)	43,036 (20.7)	46,053 (14.4)	47,828 (15.9)	56,900 (25.6)	59,789 (38.9)	18,997 (32.7)	19,339 (45.0)	21,453 (39.5)
수 입 액	178,827 (17.5)	44,223 (30.9)	41,711 (12.2)	42,971 (10.5)	49,922 (18.1)	52,581 (18.9)	16,124 (11.2)	17,392 (25.5)	19,065 (20.1)
평 균 환 율	1191.9	1202.5	1,208.8	1,174.7	1,181.8	1,170.6	1,182.2	1166.2	1165.1

주 : 통관기준(수출액(FOB), 수입액(CIF), 수출·수입액은 산업자원부 자료, 평균환율은 증가기준임.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4년 3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4. 4.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 생산 증가세 지속

- 2월 산업생산지수는 120.6(2000=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16.6% 증가
  - 제조업 생산지수는 119.7(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중 중화학(12.9%)의 생산증대가 많았으며, 경공업(0.6%)에서도 생산의 소폭 증대가 있었기 때문
  - 산업생산지수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인쇄출판(-8.3%), 의복 및 모피(-8.7%), 가죽 및 신발(-14.2%)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65.1%), 영상음향통신(34.9%) 등이 증가
- 2월 제품출하는 118.4(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하고, 재고는 115.9(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
  - 출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출하는 석유정제, 인쇄출판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여 7.1% 증가
  - 수출출하는 사무회계용기계, 가죽 및 신발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27.7% 증가
  - 재고는 영상음향통신(-16.5%), 조립금속(-10.4%)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56.5%), 화학제품(8.4%)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0% 증가
- 2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3.5로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하고 전월대비 3.1%포인트 증가(그림 2 참조)
  - 전년동기대비 반도체(31.3%), 기계장비(16.0%), 제1차 금속(10.8%) 등은 증가하

였으나 기타제조업(-1.7%), 의료정밀광학(-6.4%)에서는 감소

- 2월 서비스업 생산은 113.6(2000=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을 항목별로 보면 통신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6% 증가

<표 5> 생산 동향

(단위: %, 2000=100.0)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p	2월p	
산업생산지수	108.8 ( 8.0)	114.4 (5.1)	110.0 (6.1)	112.6 (3.0)	109.6 (3.0)	125.4 (7.8)	127.8 (10.9)	115.1 ( 4.6)	120.6 ( 16.6)
제 조 업	108.4 ( 8.2)	114.0 (5.2)	108.6 (5.8)	112.6 (3.1)	109.5 (3.1)	125.3 (8.3)	126.9 (11.4)	113.5 ( 5.1)	119.7 ( 17.4)
출 하	109.3 ( 7.9)	113.9 (4.2)	109.6 (4.5)	112.7 (2.8)	108.9 (2.5)	124.3 (6.8)	126.0 ( 9.9)	113.4 ( 4.0)	118.4 ( 14.3)
재 고	104.5 (-0.8)	110.5 (5.7)	111.7 (9.6)	112.3 (9.2)	110.4 (8.1)	110.5 (5.7)	110.5 ( 5.7)	113.1 ( 3.4)	115.9 ( 5.0)
제조업평균가동률	78.4	78.3	78.5	77.3	76.9	80.4	80.4	80.4	83.5
서비스업활동지수	116.0 ( 9.8)	117.0 (1.3)	114.1 (3.2)	117.9 (1.1)	117.2 (0.6)	120.7 (0.4)	124.9 ( 1.1)	112.9 (-2.4)	111.3 (2.6)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평균가동률은 %,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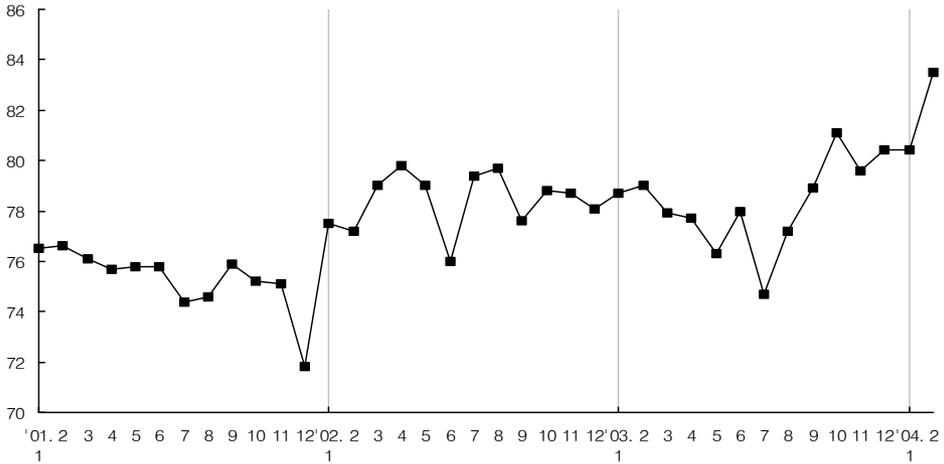
- 1) 산업생산지수란 일정기간에 이뤄진 산업생산활동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포괄범위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임(총 647개 품목을 대상).
- 2) 출하는 광공업통계조사를 기초로 연간생산액이 1,120억원 이상인 647개 품목을 선정하여 산정하는 지수이며, 재고는 540개 품목을 선정하여 산정하는 지수임.
- 3)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 20개 업종 265개 품목에 대해 월별가동률지수=(생산실적/생산능력×2000)년 기준 가동률로 계산됨.
- 4)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산업활동동향』, 2004. 3.

\_\_\_\_\_, 『2004년 2월 서비스업 활동동향』, 2004. 4.

[그림 2] 제조업 평균가동률 동향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 지속

- 200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한 114.3이며, 전월대비로도 1.0% 상승(그림 3 참조)
  - 전기에 비해 농축수산물(감자, 꾀, 닭고기)이 작황부진과 수요증가로 상승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오름
  - 서비스 부문(납입금, 고속도로 통행료, 학원비)도 전월대비 1.0% 상승
  - 전년동기대비 주요 도시별 소비자물가는 인천이 1.3%, 광주·대전은 1.2%, 부산 1.1%, 서울·울산은 전도시 평균과 같은 1.0%, 대구는 0.9% 각각 상승
  - 2004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기대비 1.6%, 전년동기대비 3.8% 각각 상승한 117.2임.
- 2004년 3월 중 생산자물가는 106.6으로 전년동기대비 4.4%, 전기대비 0.9% 각각 상승
  - 생산자물가 상승한 것은 농림수산물(3.5%)이 폭설로 인한 출하량 감소로 채소류

및 과실류가 상승하고 공급물량 부족 및 수요증가로 축산물이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

- 공산품(1.4%)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학제품이 오르고 곡물, 고철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음식료품, 금속1차제품 그리고 조립금속제품 등이 오른데 주로 기인
- 서비스도 항만하역료(4.2%), 국제항공여객료(0.7%), 건축설계·감리비(2.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여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고 전월대비로는 0.1% 상승

<표 6> 물가지수 동향

(단위 : %, 2000=100)

	2002	2003			2004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sup>1)</sup>	106.9 ( 2.7)	110.7 (3.6)	110.5 (3.4)	110.8 (3.2)	111.7 (3.4)	113.4 (3.2)	112.7 (3.4)	113.2 (3.3)	114.3 (3.1)
생활 물가지수 <sup>2)</sup>	107.7 ( 2.5)	112.1 (4.1)	111.7 (3.4)	112.1 (3.6)	113.3 (4.2)	115.7 (4.1)	114.5 (4.3)	115.3 (4.2)	117.2 (3.8)
생산자 물가지수 <sup>3)</sup>	99.2 (-0.3)	101.4 (2.2)	101.0 (1.3)	101.1 (1.9)	102.3 (2.5)	105.5 (4.2)	104.3 (3.8)	105.6 (4.5)	106.6 (4.4)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분기별 자료는 월별 자료의 평균치임.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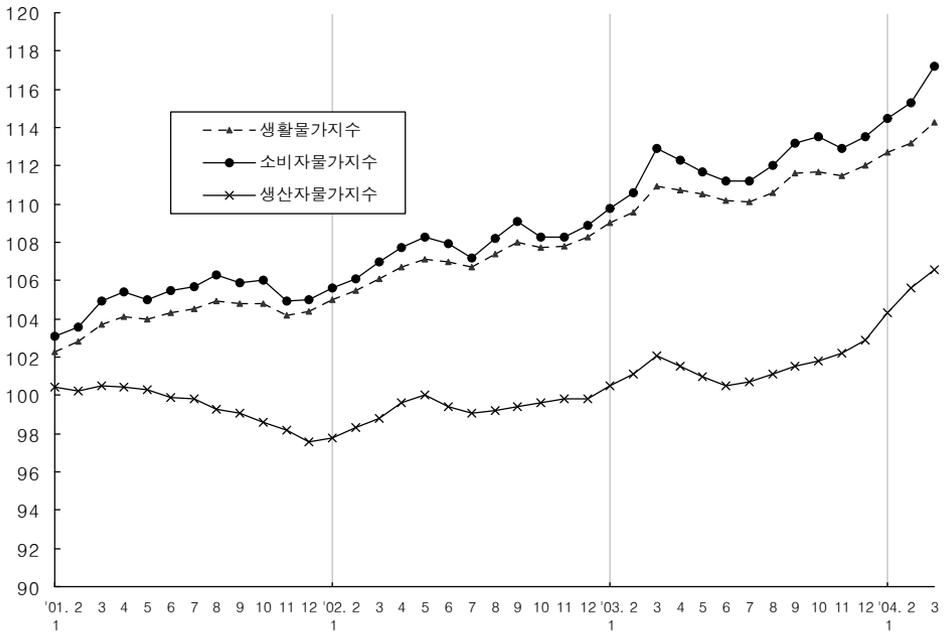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4년 3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4. 4.

통계청, 『2004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4. 4.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노	동	동	향
---	---	---	---

## 고용 동향

김 용 현\*

## ◆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 증가

- 2004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2,98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43천명(2.4%) 증가하고 3월 중 경제활동인구 또한 23,24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05천명(2.7%) 증가
  - 1/4분기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3,55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8천명(1.6%),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9,425천명으로 325천명(3.6%) 증가
  - 1/4분기 경제활동참가율(61.2%)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상승하였으며, 3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동기대비 1.0%포인트 상승
  -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4,59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하고, 3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4,35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 하락
- 2004년 1/4분기 취업자는 22,10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1천명(2.1%) 증가
  - 남성 취업자는 13,03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4천명(1.5%)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074천명으로 277천명(3.1%) 증가
  - 3월 취업자는 22,37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34천명(2.4%) 증가하고 전월대비로도 366천명(1.7%)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그림 1 참조).
- 2004년 1/4분기 실업자는 878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천명(8.9%) 증가하고, 3월 실업자 또한 87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2천명(8.9%) 증가
  - 1/4분기 남성 실업자는 527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천명(4.8%), 여성 실업자는 350천명으로 47천명(15.5%) 증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 1/4분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기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고, 3월 중 실업률 또한 3.8%로 0.6%포인트 증가하였으나 계절조정실업률은 3.4%로 다소 낮음(그림 2 참조).
- 1/4분기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율이 노동수요 증가율보다 높은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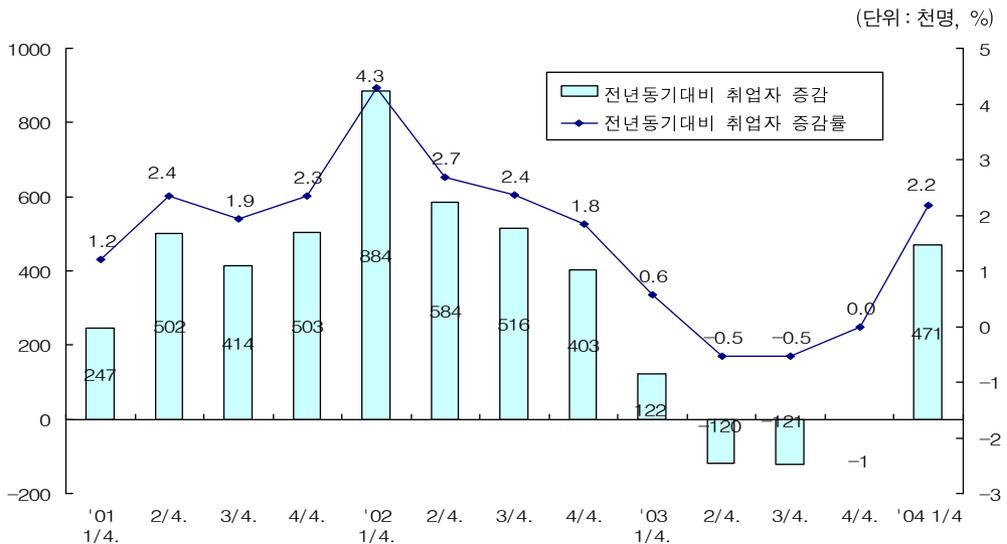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2,916 ( 0.2)	22,439 ( 0.4)	23,055 (-0.2)	23,050 (-0.1)	23,119 ( 0.6)	22,982 ( 2.4)	22,790 ( 2.0)	22,906 ( 2.6)	23,249 ( 2.7)
참가율	61.4	60.3	61.8	61.6	61.7	61.2	60.7	61.0	61.8
취업자	22,139 (-0.1)	21,663 ( 0.6)	22,303 (-0.5)	22,295 (-0.5)	22,325 (-0.0)	22,104 ( 2.1)	21,936 ( 1.7)	22,005 ( 2.4)	22,371 ( 2.4)
실업자	777	806	751	756	794	878	854	900	879
실업률	3.4	3.6	3.3	3.3	3.4	3.8	3.7	3.9	3.8
비경제활동인구	14,424 ( 2.4)	14,755 ( 1.9)	14,243 ( 3.2)	14,341 ( 2.8)	14,357 ( 1.7)	14,595 (-1.1)	14,755 (-0.4)	14,671 (-1.4)	14,35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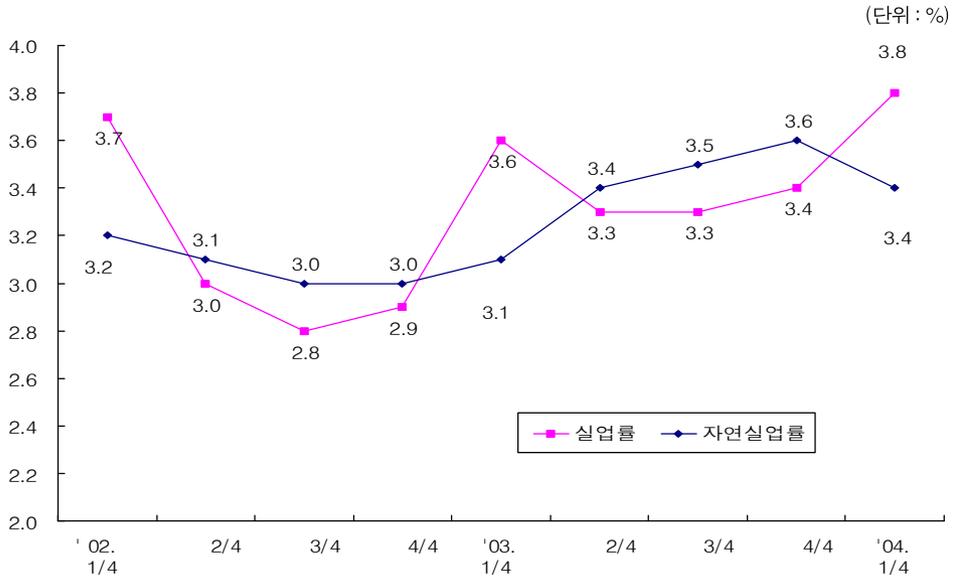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그림 1] 취업자 증감(률) 변화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그림 2]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 ◆ 제조업,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

- 2004년 1/4분기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90천명, -5.3%),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명, -0.2%)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35천명, 7.3%), 제조업(110천명, 2.6%) 등에서는 증가
  - 3월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 또한 농림어업(-74천명, -4.0%),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명, -0.4%)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33천명, 7.2%), 제조업(100천명, 2.4%) 등에서는 증가
  -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에 취업자수 증가는 중견기업 이상 규모에서 많이 증가하고,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영세규모를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
  - 제조업 취업자수는 중화학공업에서 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다소 감소하였음.
  -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는 2003년 2/4분기 이후 상승추세에 있으며, 제조업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3년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2004년 1/4분기에 플러스 증가율(2.6%)로 반전(그림 3 참조)

<표 2>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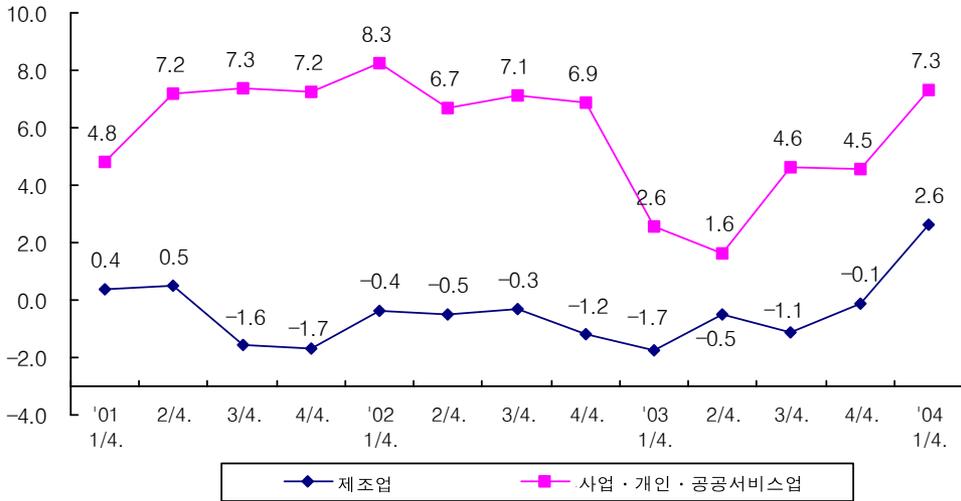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산업	22,139 (-0.1)	21,633 ( 0.6)	22,303 (-0.5)	22,303 (-0.5)	22,325 ( 0.0)	22,104 ( 2.1)	21,936 ( 1.7)	22,005 ( 2.4)
농림어업	1,950 (-5.8)	1,699 (-1.6)	2,127 (-5.5)	2,090 (-7.2)	1,882 (-8.0)	1,609 (-5.3)	1,489 (-6.7)	1,555 (-5.5)	1,781 (-4.0)
제조업	4,205 (-0.8)	4,168 (-1.7)	4,238 (-0.5)	4,166 (-1.1)	4,246 (-0.1)	4,278 ( 2.6)	4,254 ( 2.7)	4,272 ( 3.0)	4,309 ( 2.4)
건설업	1,816 ( 4.0)	1,734 ( 8.3)	1,854 ( 3.5)	1,821 ( 2.2)	1,854 ( 2.3)	1,762 ( 1.6)	1,740 ( 2.1)	1,728 ( 1.8)	1,817 ( 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52 (-2.4)	5,919 (-1.2)	5,834 (-2.8)	5,805 (-3.5)	5,851 (-2.1)	5,912 (-0.1)	5,939 (-1.5)	5,919 ( 0.0)	5,878 ( 1.2)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6,139 ( 3.4)	5,927 ( 2.6)	6,055 ( 1.6)	6,253 ( 4.6)	6,322 ( 4.5)	6,362 ( 7.3)	6,327 ( 7.1)	6,347 ( 7.7)	6,412 ( 7.2)
전기·운수· 창고 및 금융업	2,160 ( 0.1)	2,168 ( 0.8)	2,178 ( 1.5)	2,142 (-0.8)	2,153 (-1.0)	2,163 (-0.2)	2,167 (-0.1)	2,165 (-0.3)	2,156 (-0.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그림 3] 제조업과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 ◆ 임금근로자 증가

- 2004년 1/4분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14,614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46천명(3.1%)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 또한 7,49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천명(0.3%)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84천명, 4.0%)와 임시근로자(163천명, 3.3%)는 증가하고, 일용근로자(-1천명, -0.0%)는 감소하였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서 많이 증가
  - 2004년 1/4분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1.0%로 전년동기대비 0.4%포인트 증가
  - 2004년 3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58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7천명(0.9%) 증가하고, 임금근로자도 14,78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천명(3.2%)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있음(그림 4 참조).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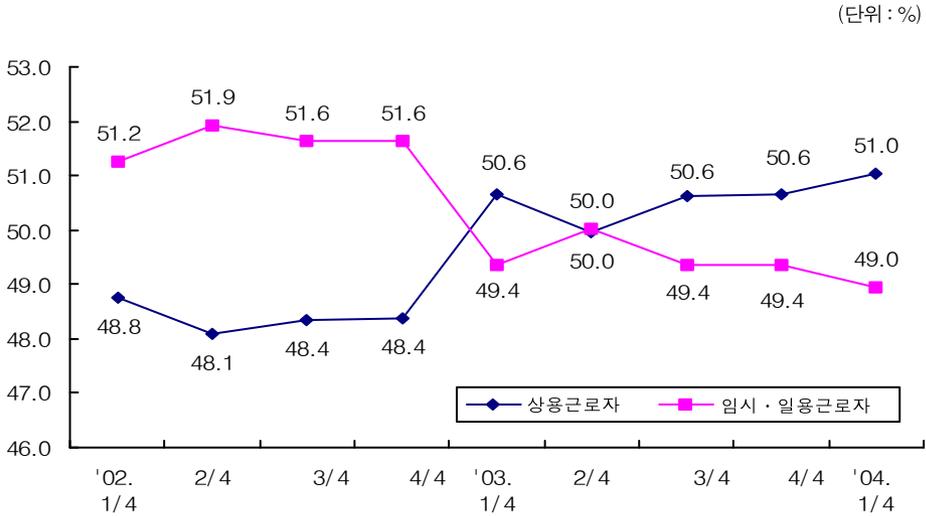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체	22,139 (-0.1)	21,633 ( 0.6)	22,303 (-0.5)	22,295 (-0.5)	22,325 ( 0.0)	22,104 ( 2.1)	21,936 (1.7)	22,005 ( 2.4)	22,371 ( 2.4)
비임금근로자	7,736 (-3.2)	7,465 (-2.4)	7,794 (-4.6)	7,938 (-3.1)	7,748 (-2.5)	7,490 ( 0.3)	7,428 (0.0)	7,456 ( 0.1)	7,585 ( 0.9)
임금근로자	14,402 ( 1.6)	14,168 ( 2.2)	14,509 ( 1.8)	14,356 ( 0.9)	14,577 ( 1.4)	14,614 ( 3.1)	14,508 (2.6)	14,549 ( 3.6)	14,785 ( 3.2)
상용근로자	7,269 ( 5.9) [50.5]	7,176 ( 6.3) [50.6]	7,250 ( 5.8) [50.0]	7,268 ( 5.7) [50.6]	7,383 ( 6.1) [50.6]	7,460 ( 4.0) [51.0]	7,426 (4.0) [51.2]	7,453 ( 4.1) [51.2]	7,501 ( 3.8) [50.7]
임시·일용 근로자	7,134 (-2.5) [49.5]	6,992 (-1.6) [49.4]	7,259 (-1.9) [50.0]	7,088 (-3.7) [49.4]	7,194 (-3.2) [49.4]	7,154 ( 2.3) [49.0]	7,082 (1.2) [48.8]	7,098 (-0.8) [48.8]	7,284 ( 2.7) [49.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안의 수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4] 고용형태별 비율



자료 :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 1~4인 제외 전규모에서 취업자 증가

- 2004년 1/4분기 1~4인 규모 사업체의 취업자수는 9,58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1%(-9천명) 감소
- 5인 이상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는 취업자수 증가
  - 2004년 1/4분기 5~9인 사업체에서의 취업자는 1.8%(51천명), 10~29인 사업체에서 5.3%(171천명), 30~299인 사업체에서 5.2%(145천명), 300~499인 사업체에서 6.2%(85천명),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6%(78천명) 각각 증가

〈표 4〉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체	22,169 ( 2.8)	21,633 ( 0.6)	22,303 (-0.5)	22,295 (-0.5)	22,325 ( 0.0)	22,104 ( 2.1)	21,936 ( 1.7)	22,005 (2.4)	22,371 (2.4)
1~4인	10,315 ( 1.3)	9,591 (-3.3)	9,949 (-5.8)	10,031 (-4.6)	9,863 (-3.9)	9,581 (-0.1)	9,500 (-0.9)	9,535 (0.2)	9,708 (0.5)
5~9인	3,029 (7.3)	2,860 (-2.9)	2,934 (-4.2)	2,871 (-5.8)	2,881 (-5.9)	2,911 ( 1.8)	2,853 (-0.5)	2,902 (3.3)	2,978 (2.6)
10~29인	3,145 ( 6.1)	3,249 ( 6.7)	3,379 ( 8.2)	3,358 ( 5.7)	3,456 ( 6.8)	3,420 ( 5.3)	3,417 ( 6.4)	3,401 (5.3)	3,443 (4.0)
30~299인	2,718 ( 2.6)	2,770 ( 3.5)	2,866 ( 6.0)	2,827 ( 3.6)	2,871 ( 4.0)	2,915 ( 5.2)	2,881 ( 4.8)	2,896 (4.6)	2,969 (6.3)
300~499인	1,332 ( 3.3)	1,384 ( 5.7)	1,383 ( 3.6)	1,411 ( 6.1)	1,454 ( 7.5)	1,469 ( 6.2)	1,469 ( 5.7)	1,459 (5.1)	1,478 (7.7)
500인 이상	1,630 (-1.6)	1,779 ( 9.9)	1,792 ( 9.7)	1,797 (10.9)	1,800 ( 9.2)	1,807 ( 1.5)	1,815 ( 3.3)	1,812 (1.5)	1,794 (0.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 청년층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 2004년 1/4분기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593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47천명)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05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144천명)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두드러짐.

- 60세 이상 취업자는 도소매 및 건설업에서 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3월 취업자 또한 15~29세(-40천명, -0.9%)에서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는데, 60세 이상(202천명 10.0%)과 40대(195천명, 3.3%)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5> 연령계층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체	22,139 (-0.1)	21,633 ( 0.6)	22,303 (-0.5)	22,295 (-0.5)	22,325 ( 0.0)	22,104 ( 2.1)	21,936 ( 1.7)	22,005 ( 2.4)	22,371 ( 2.4)
15~29세	4,606 (-4.0)	4,640 (-4.0)	4,588 (-5.0)	4,633 (-3.6)	4,563 (-3.4)	4,593 (-1.0)	4,651 (-0.7)	4,591 (-1.4)	4,535 (-0.9)
15~19세	272 (-13.1)	292 (-19.6)	245 (-19.4)	289 (-10.0)	261 (-0.4)	278 (-4.8)	331 ( 0.3)	281 (-7.3)	223 (-8.2)
20~29세	4,334 (-3.4)	4,348 (-2.7)	4,343 (-4.1)	4,344 (-3.1)	4,302 (-3.6)	4,314 (-0.8)	4,320 (-0.8)	4,310 (-1.0)	4,312 (-0.5)
30~39세	6,186 (-0.4)	6,171 ( 0.7)	6,239 (-0.6)	6,159 (-1.2)	6,175 (-0.6)	6,169 ( 0.0)	6,127 (-0.6)	6,166 ( 0.5)	6,214 ( 0.1)
40~49세	6,031 ( 3.0)	5,887 ( 3.6)	6,060 ( 3.2)	6,044 ( 2.6)	6,134 ( 2.6)	6,093 ( 3.5)	6,058 ( 3.6)	6,071 ( 3.6)	6,151 ( 3.3)
50~59세	3,174 ( 2.5)	3,023 ( 3.1)	3,207 ( 2.2)	3,212 ( 1.7)	3,252 ( 2.7)	3,194 ( 5.7)	3,157 ( 5.1)	3,167 ( 6.1)	3,257 ( 5.7)
60세 이상	2,142 (-2.8)	1,912 (-1.3)	2,209 (-4.1)	2,247 (-3.5)	2,200 (-2.1)	2,056 ( 7.5)	1,943 ( 4.4)	2,010 ( 7.9)	2,214 (10.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취업자 증가

- 2003년 1/4분기 직종별 취업자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214천명, 4.9%),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256천명, 3.7%)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사무직(-30천명, -0.9%), 농림어업직(-102천명, -6.4%)에서 감소
  - 2003년 3월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98천명, -5.6%), 사무직(-44천명, -1.4%)에서는 감소한 반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250천명, 3.5%), 전문·기술·행정관리직(238천명, 5.5%), 서비스·판매직(189천명, 3.6%)에서는 증가

〈표 6〉 직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체	22,139 (-0.1)	21,633 ( 0.6)	22,303 (-0.5)	22,295 (-0.5)	22,325 ( 0.0)	22,104 ( 2.1)	21,936 ( 1.7)	22,005 ( 2.4)	22,371 ( 2.4)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4,440 (-4.2)	4,334 ( 3.1)	4,401 ( 3.1)	4,505 ( 4.7)	4,518 (-5.6)	4,548 ( 4.9)	4,527 ( 5.6)	4,515 ( 3.8)	4,603 ( 5.5)
사무직	3,172 (12.4)	3,184 (15.2)	3,212 (14.4)	3,160 (12.3)	3,132 ( 7.9)	3,154 (-0.9)	3,150 (-1.7)	3,177 ( 0.3)	3,135 (-1.4)
서비스·판매직	5,570 (-3.9)	5,558 (-3.6)	5,530 (-4.8)	5,563 (-4.5)	5,631 (-2.7)	5,690 ( 2.4)	5,717 ( 1.2)	5,707 ( 2.6)	5,647 ( 3.5)
농림어업직	1,834 (-6.6)	1,603 (-2.5)	2,001 (-5.9)	1,976 (-8.1)	1,756 (-9.3)	1,501 (-6.4)	1,409 (-6.6)	1,451 (-6.9)	1,644 (-5.6)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직	7,123 (-2.8)	6,954 (-2.5)	7,159 (-3.5)	7,091 (-3.2)	7,288 (-1.8)	7,210 ( 3.7)	7,133 ( 3.2)	7,156 ( 4.4)	7,342 ( 3.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 ◆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자 증가

- 2004년 1/4분기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실업자는 40대(33천명, 28.0%)와 청년층(24천명, 5.7%)의 증가가 두드러짐.
  - 실업률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는데, 15~19세의 실업률이 15.5%로 전년 동기대비 3.9%포인트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48천명, 실업률은 8.9%로 전년동기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으며(그림 6 참조), 3월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3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9천명(7.1%) 증가하고 실업률은 8.8%로 전년동기대비 0.7%포인트 상승
- 2004년 1/4분기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8천명, 24.1%), 고졸(40천명, 9.4%), 대졸 이상(4천명, 1.5%) 등 모든 교육정도에서 증가
  - 실업률 또한 중졸 이하 2.5%, 고졸 4.6%, 대졸 이상 3.8%로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와 고졸은 0.5%포인트, 0.3%포인트 각각 상승하고, 대졸 이상은 0.1%포인트 감소
  - 2004년 3월 실업자 및 실업률을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대졸 이상(-2천명, -0.2%포인트)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고졸(56천명, 0.4%포인트)과 중졸 이하(18천명, 0.3%포인트)에서는 증가

<표 7>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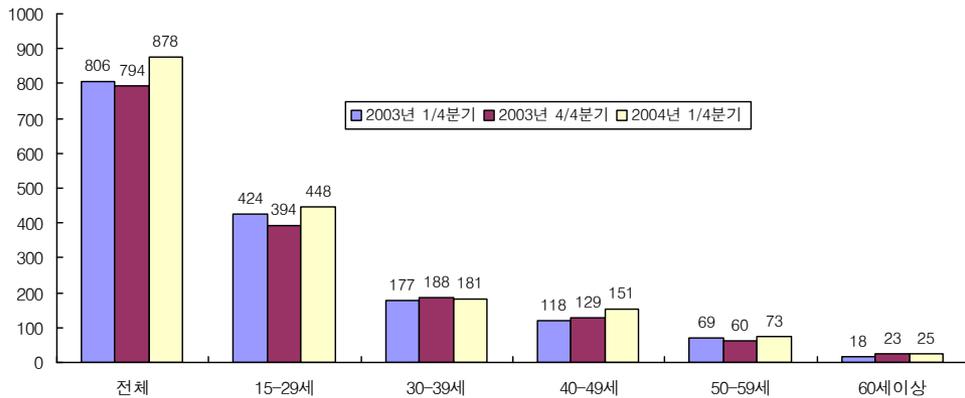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체	777 ( 3.4)	806 ( 3.6)	751 ( 3.3)	756 ( 3.3)	794 ( 3.4)	878 ( 3.8)	854 ( 3.7)	900 ( 3.9)
15~29세	383 ( 7.7)	424 ( 8.4)	362 ( 7.3)	350 ( 7.0)	394 ( 7.9)	448 ( 8.9)	449 ( 8.8)	460 ( 9.1)	435 ( 8.8)
15~19세	37 (12.0)	38 (11.6)	31 (11.2)	36 (11.1)	45 (14.7)	51 (15.5)	60 (15.3)	47 (14.3)	45 (16.8)
20~29세	345 ( 7.4)	387 ( 8.2)	331 ( 7.1)	314 ( 6.7)	349 ( 7.5)	398 ( 8.4)	389 ( 8.3)	413 ( 8.7)	391 ( 8.3)
30~39세	182 ( 2.9)	177 ( 2.8)	179 ( 2.8)	184 ( 2.9)	188 ( 3.0)	181 ( 2.9)	181 ( 2.9)	186 ( 2.9)	175 ( 2.7)
40~49세	128 ( 2.1)	118 ( 2.0)	126 ( 2.0)	197 ( 2.2)	129 ( 2.1)	151 ( 2.4)	131 ( 2.1)	152 ( 2.4)	169 ( 2.7)
50~59세	66 ( 2.0)	69 ( 2.2)	67 ( 2.0)	66 ( 2.0)	60 ( 1.8)	73 ( 2.2)	66 ( 2.0)	76 ( 2.3)	77 ( 2.3)
60세 이상	19 ( 0.9)	18 ( 0.9)	18 ( 0.8)	19 ( 0.8)	23 ( 1.0)	25 ( 1.2)	26 ( 1.3)	26 ( 1.3)	22 ( 1.3)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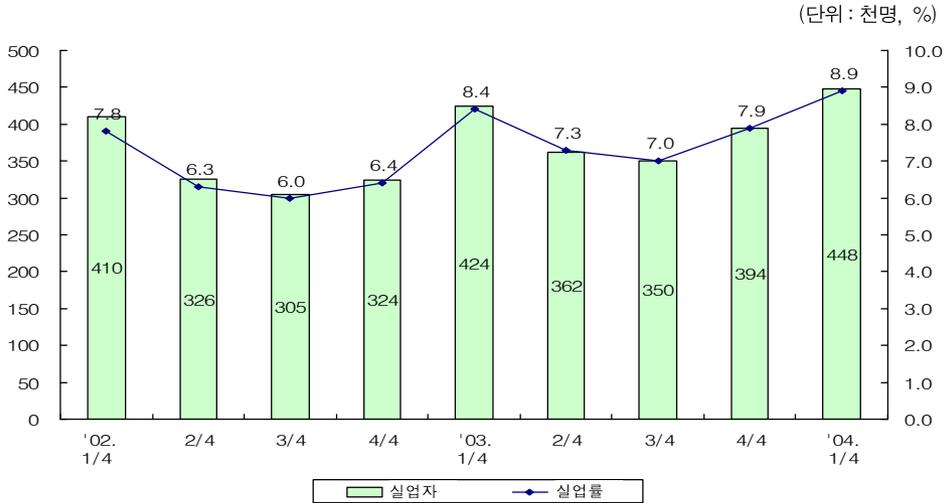
[그림 5]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그림 6] 청년층 실업자와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표 8〉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전 체	777 (3.4)	806 (3.6)	751 (3.3)	756 (3.3)	794 (3.4)	878 (3.8)	854 (3.7)	900 (3.9)	879 (3.8)
중 졸 이 하	122 (2.0)	116 (2.0)	110 (1.8)	131 (2.2)	132 (2.2)	144 (2.5)	150 (2.7)	145 (2.6)	136 (2.3)
고 졸	411 (4.1)	426 (4.3)	385 (3.9)	396 (4.0)	438 (4.3)	466 (4.6)	494 (4.8)	459 (4.5)	446 (4.4)
대 졸 이 상	243 (3.5)	264 (3.9)	256 (3.7)	229 (3.3)	224 (3.2)	268 (3.8)	210 (3.0)	296 (4.1)	296 (4.1)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3월 고용동향』, 2004. 4.

#### ◆ 신규실업자 감소, 전직실업자 증가

- 2004년 1/4분기 전체 실업자 878천명 중 신규실업자는 81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천명(-23.6%) 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796천명으로 96천명(13.7%) 증가
  - 2004년 3월 전체 실업자 879천명 중 신규실업자는 7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천명(-8.4%) 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03천명으로 79천명(10.9%) 증가
  - 2004년 1/4분기 전직실업자 중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된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81.8%, 43천명)하고, 3개월 미만, 3~5개월 이상된 전직실업자도 5.9%(27천명), 13.6%(26천명) 각각 증가하여 실업상태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

- 3월의 구직기간별 특성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09천명(9.2%)으로 3~5개월(193천명, 2.1%), 6개월 이상(95천명, 48.5%)보다 많음.
- 6개월 이상 구직기간별 실업자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표 9>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신규실업자	67 [8.6]	106 [13.2]	60 [8.0]	46 [6.1]	58 [7.3]	81 [9.2]	86 [10.1]	82 [10.1]	76 [8.6]
전직실업자	710 [91.4]	700 [86.8]	692 [92.1]	710 [93.9]	736 [92.7]	796 [90.8]	768 [89.9]	818 [89.9]	803 [91.4]
3개월 미만	450 [63.4]	459 [65.5]	443 [64.0]	435 [61.3]	461 [62.6]	486 [62.6]	473 [61.5]	477 [58.3]	509 [58.3]
3~5개월	188 [26.5]	189 [27.0]	186 [26.9]	193 [27.2]	184 [25.0]	215 [25.0]	205 [26.7]	246 [30.1]	193 [30.1]
6개월 이상	72 [10.1]	53 [7.4]	62 [9.0]	81 [11.4]	91 [12.4]	95 [11.9]	91 [11.8]	94 [11.5]	101 [12.6]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신규실업자는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실업자를 나타내며,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던 전직실업자 중 현재 실업자로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 3~5개월,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 근로시간 다소 감소

○ 2004년 1/4분기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8.3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5시간 감소

- 1/4분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4시간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2004년 1/4분기 임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8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8시간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41.0시간으로 약 1.0시간 감소
- 3월의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은 주당 49.0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2시간 감소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

〈표 10〉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시간/주)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3월	
임금근로자	48.2	48.8	49.3	45.7	48.8	48.3	47.9	48.1	49.0	
상용직	49.0	49.4	50.6	45.9	50.1	49.4	48.6	49.1	50.4	
임시직	49.7	50.6	50.4	47.9	50.0	49.8	49.7	49.6	50.2	
일용직	41.5	42.0	42.4	40.2	41.3	41.0	41.1	40.7	4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동동향

임금 동향

강승복\*

◆ 2003년 시간당 임금, 10.3% 상승

- 2003년, 10인 이상 사업체 중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1,187원, 10,034원을 기록
  -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10.3%, 9.1%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의 총근로시간이 전년대비 0.8% 감소함에 따라 월 평균 임금총액 상승률(9.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표 1> 연도별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원/시간, %)

		2000	2001	2002	2003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727 ( 8.0)	1,825 ( 5.6)	2,036 (11.6)	2,228 ( 9.4)
	시간당 임금(원)	8,377 ( 9.0)	8,950 ( 6.8)	10,140 (13.3)	11,187 (10.3)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601 ( 8.5)	1,702 ( 6.3)	1,907 (12.0)	2,074 ( 8.8)
	시간당 임금(원)	7,470 (10.1)	8,114 ( 8.6)	9,200 (13.4)	10,034 ( 9.1)

주: 1)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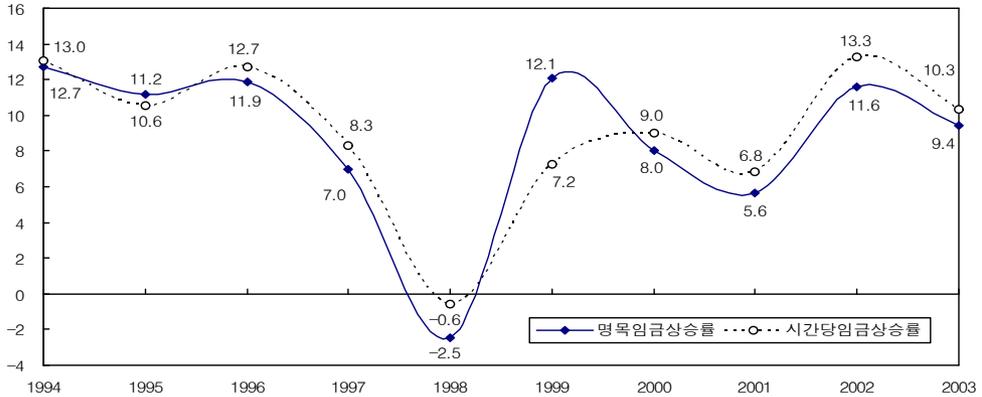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연도별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 고임금 산업의 고용증가가 임금상승 주도

#### ○ 제조업의 임금수준과 근로자수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아

- 2003년의 산업별 임금수준과 근로자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전산업 평균 임금보다 높은 산업들의 근로자수 증가율은 전산업 평균치보다 높은 반면, 제조업 등 전산업 평균 임금보다 낮은 산업들의 근로자수 증가율은 전산업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남.
- 이는 2003년의 고용증가가 임금이 낮은 산업보다 높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003년의 임금상승은 주로 고임금 산업의 고용증가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됨.

### ◆ 특별급여의 임금상승 기여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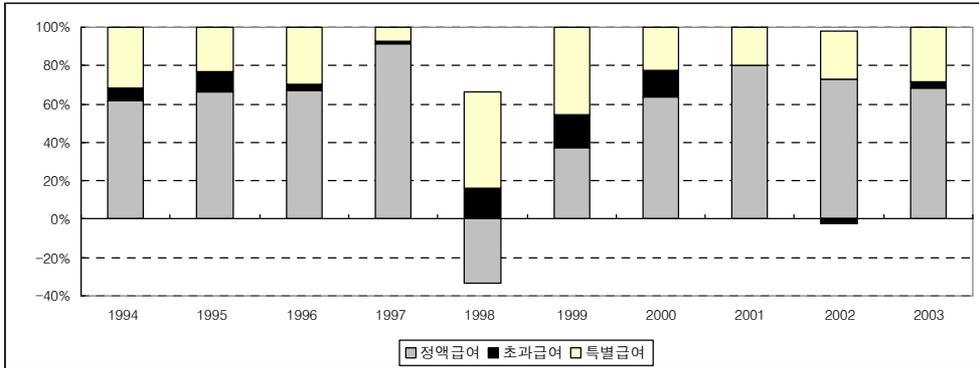
#### ○ 2001년 이후 특별급여의 임금상승 기여도 증가

- 당해연도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100.0%라 할 때,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2001년 19.6%, 2002년 25.8%, 2003년 28.3%로 꾸준히 증가<sup>2)</sup>
- 반면,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2001년 79.9%, 2002년 76.6%, 2003년 68.4%로 감소

2)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Delta TWG}{TWG} = \frac{\Delta RWG}{RWG} \frac{RWG}{TWG} + \frac{\Delta OWG}{OWG} \frac{OWG}{TWG} + \frac{\Delta SWG}{SWG} \frac{SWG}{TWG}$$

[그림 2] 연도별 임금총액 상승률에 대한 임금내역별 기여율 추이



주: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

### ◆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확대

○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임시·일용직보다 크게 높음.

-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10.7%로서 임시·일용직의 5.6%에 비하여 5.1포인트 높게 나타나 고용형태간 임금격차가 예년에 비해 2003년도에 크게 확대됨.
-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은 고용형태별 근로자 비중의 변화에 기인함.

<표 2>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2000	2001	2002	2003
전 체	1,143 ( - )	1,242 ( 8.7)	1,325 ( 6.7)	1,466 (10.7)
상용직	1,527 ( - )	1,649 ( 7.9)	1,769 ( 7.3)	1,958 (10.7)
임시·일용직	783 ( - )	843 ( 7.6)	901 ( 7.0)	952 ( 5.6)
고용형태간 임금격차	51.3	51.1	51.0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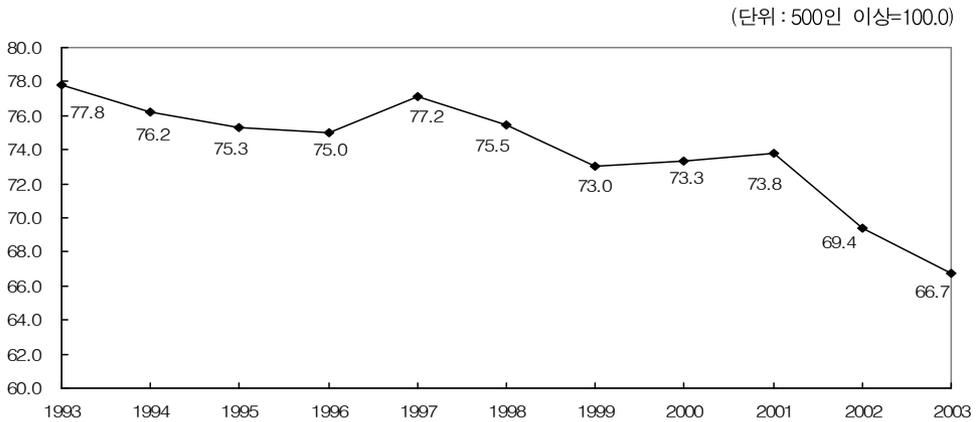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상승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8월 원자료.

◆ 50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간 임금격차, 2년 연속 확대<sup>3)</sup>

- 50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간 임금격차는 1993년 이후 가장 높아
  - 2003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3,043천원으로 전년대비 11.9% 상승하였으며, 10~499인 사업체는 2,031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상승
  -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을 100.0으로 하였을 때 10~4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2003년에 66.7을 기록하여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였음.

[그림 3] 연도별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10~4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 추이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기업내 노동이동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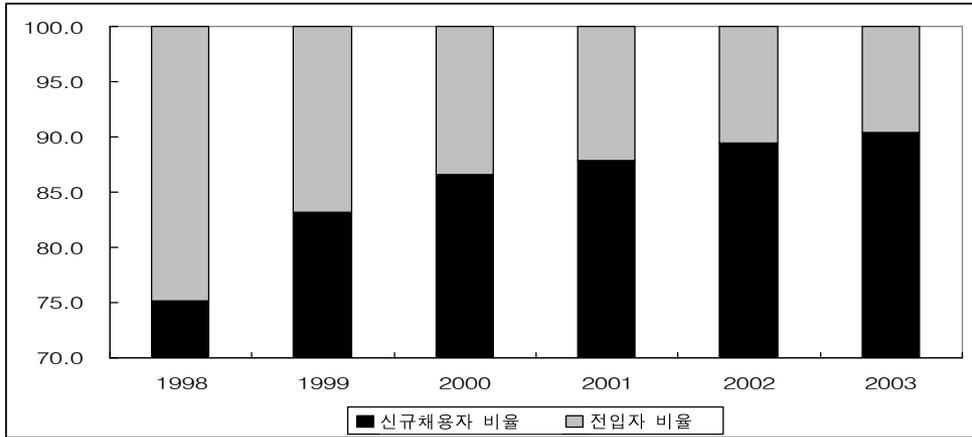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전입자 및 전출자 비율 하락
  - 2003년 입직자(신규채용자+전입자) 중 전입자 비율은 9.6%로 전년(10.5%)보다 0.9%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신규채용자 비율은 90.4%로 전년(89.5%)보다 상승
  - 2003년 이직자(해고·퇴직자+전출자) 중 전출자 비율은 10.8%로 전년(20.6%)보다 9.8%포인트 하락하였으며, 해고·퇴직자 비율은 89.2%로 전년(79.4%)보다 상승
  - 전입자 및 전출자 비율은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

3) 『매월노동동향』 4월호의 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은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함.

기 이후 기업내 노동이동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

[그림 4] 입직자 중 신규채용자 비율 및 전입자 비율 추이

(단위 : %)



주: 1)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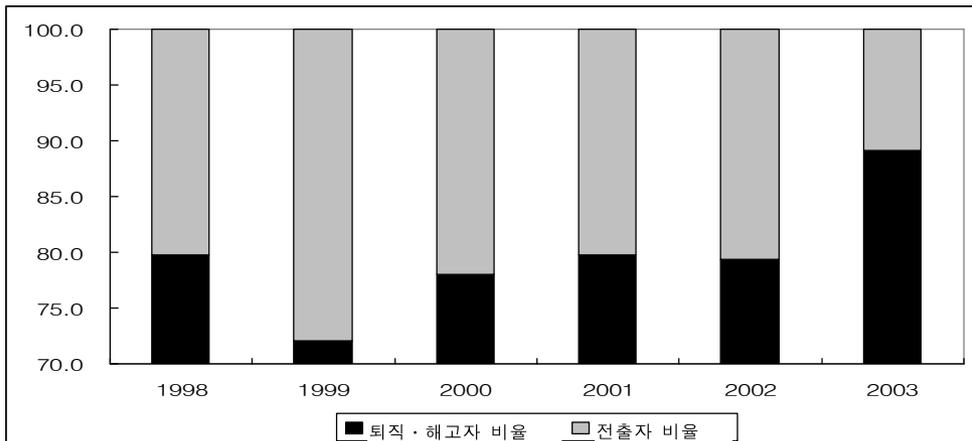
2) 전입자수=입직자수-신규채용자수.

3) 전입자는 동일기업체 내에서 지점간 이동 등 다른 사업체에서 이동한 자를 말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

[그림 5] 이직자 중 퇴직·해고자 비율 및 전출자 비율 추이

(단위 : %)



주: 1)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전출자수=이직자수-퇴직·해고자수.

3) 전출자는 동일기업체 내에서 지점간 이동 등 다른 사업체로 이동한 자를 말함.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를 사용하여 계산.

◆ 2004년 3월 임금교섭 진도율 7.6%, 협약임금 인상률 5.1%

- 협약임금 인상률은 전년동기보다 0.9%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4년 3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5.1%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6.0%보다 0.9%포인트 하락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율은 66.2%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75.8%보다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비중은 32.7%로 전년동기의 23.7%보다 증가하였으며, 하향 조정 업체의 비중도 1.1%로 전년동기의 0.5%보다 증가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전년동기의 6.0%보다 하락하였으며, 공공부문도 3.2%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7.5%에 비해 낮은 인상률 기록
- 임금교섭은 전년동기보다 약간 빠르게 진행 중
  - 2004년 3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909개소 중 450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보다 약간 높은 7.6%의 진도율을 기록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7.7%로 5,727개소 중 439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82개소 중 11개소가 타결되어 6.0%의 진도율을 기록

<표 3>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4년 3월 31일 현재)

(단위: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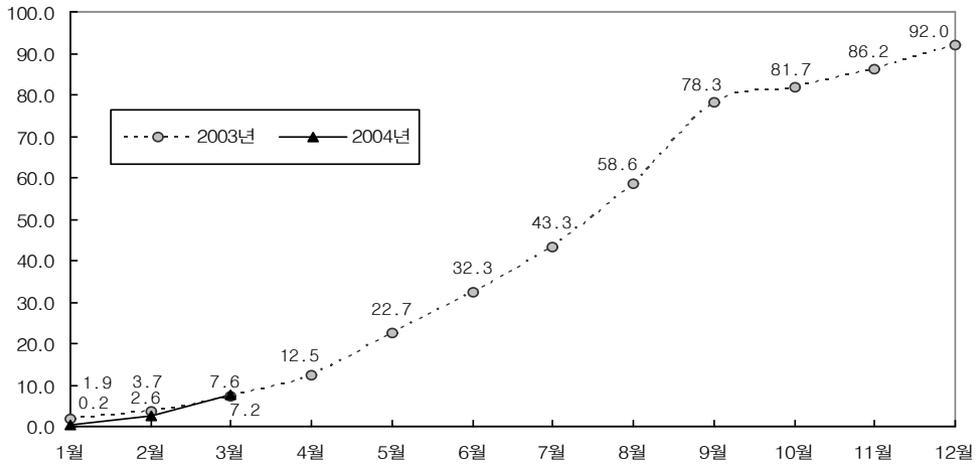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909 (5,751)	450 (413)	7.6 (7.2)	5.1 (6.0)
민간부문	5,727 (5,575)	439 (408)	7.7 (7.3)	5.2 (6.0)
공공부문	182 ( 176)	11 ( 5)	6.0 (2.8)	3.2 (7.5)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6]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3, 2004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노 동 동 향

# 노사관계 동향

김정우\*

## I. 노사분규 동향

### ◆ 분규참가자수 대폭 증가, 분규발생건수근로손실일수 감소

- 2004년 4월 19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분규발생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분규참가자수는 대폭 늘어남(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2건으로 전년동기 27건에 비해 다소 감소
  - 근로손실일수 역시 74,777일로 전년동기 83,944일에 비해 다소 감소
  - 반면 분규참가자수가 전년동기의 8,103명에서 24,748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3년 초의 분규참가자수가 예외적으로 적었고, 올해 들어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에서 부분 및 전면파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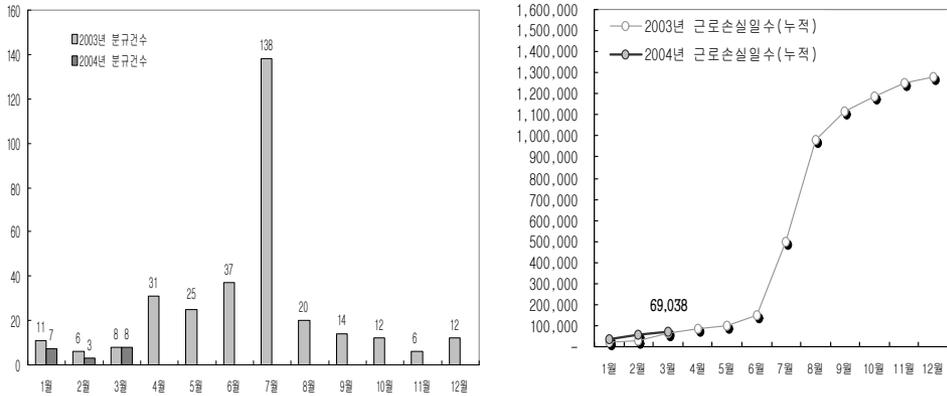
(단위: 건, 명, 천일)

	2002. 4. 19	2003. 4. 19	2004. 4. 19
노 사 분 규 발 생 건 수	38	27	22
분 규 참 가 자 수(명)	17,928	8,103	24,748
근 로 손 실 일 수(천일)	235	84	75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jw@kli.re.kr).

[그림 1]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3, 2004년)



## II. 노동정책 동향

###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3월 25일, 외국인력 송출국가, 도입규모, 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함.
- 외국인력 수급계획의 내용
  - － 송출국가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
    - 송출국가는 사업주 선호도, 사업장 이탈률, 송출과정의 투명성, 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태국 등 8개국으로 지정함.
    - 이 중 인력송출이 준비된 필리핀, 태국, 몽골과 우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미비점이 발견된 중국,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4월 말까지 보완대책 수립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임.
  - － 외국인력 도입업종
    - 기존 외국인력제도의 허용업종과 동일하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 어업, 서비스업 6개 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 제한함.

- 외국인력 도입규모
  -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 규모로 올해는 약 7만 9천명을 도입하되, 고용허가제 2만 5천명, 취업관리제 1만 6천명, 산업연수제 3만 8천명으로 제도별 도입규모를 배분함.
- 불법채류자 고용근절 추진
  - 신규외국인력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법고용에 대한 강력한 사업주 단속, 처벌을 추진할 계획임.

###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전국확산

-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중심으로 4월말 현재 10개 광역자치단체와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함.
  - 이는 지난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지역차원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지역노사정협의회는 현재 14개 광역자치단체와 28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발전방안, 지역 노사정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 ※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으로 설치되며, 지역 노사단체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지방노동관서, 지자체 대표로 구성되나 민주노총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지역노사정협의회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고용안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분에서 임금안정에 협력
  -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투명경영 등을 실천하고 근로자와 노조는 작업장 혁신과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하고 노사 양측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노사갈등을 자율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 진행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협의 진행
  - 작년 4월부터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입각해 11월부터 관계부처 (노동·재경·교육·행자·정통부, 예산처, 국무조정실)간 논의시작
  - 지난 5월 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수준 향상, 일부 직종에 대한 상용직화 등의 방안을 논의함.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집배원과 환경미화원 등 3만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교사, 학교 급식 조리원 등 6만 5,000명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함.
- 경총, 비정규직 관계부처 장관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한 반대 표명
  - 경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의 방만화와 노동시장의 경직화 및 민간부문의 노사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괄적 정규직화 추진을 반대함을 밝힘.
  - 다만 공공부문의 지불능력이나 직종의 성격, 예산 등을 감안한 개별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을 천명
  - 이와 함께 기업은 가급적 인위적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동시에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본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희망함.
- 양대노총,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재계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대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 85% 수준 확보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
  -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금지, 중단하고 직영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차별철폐 등을 촉구함.
- 이렇듯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싼 노사정간 입장차이가 커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17대 국회의원 총선, 민주노동당 10석 확보, 녹색사민당 해산

- 이번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의원을 확보한 반면, 한국노총이 주축이 된 녹색사민당은 0.5%의 정당지지도를 얻는데 그쳐 국회입성에 실패하고 해산을 결정
  - 적극적인 민주노동당 지지활동을 벌여왔던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를 기대이상의 선전으로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표명
  -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환영하면서, 녹색사민당이 참패한 이번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사퇴함.
- 경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총선이 돈 안드는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를 확립하는 좋은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민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 양대노총,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반대 천명

-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대를 표명
  - 양대노총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19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투기적 주식시장에서 운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여 국내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